

여수 여명학교 전공과, 개인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실시

2022년 전공과 학생 10명 취업 달성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귀감

여수여명학교 전공과(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 과정의 직업전문교육 실시 과정) 학생 10명이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귀감이 되고 있다.

여수여명학교는 전남 특수학교(급)에서 중증의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로 그동안 한 해에 취업(최저시급이상의 임금을 받거나 지역사회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만 계상함)하는 학생이 1~3명 이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전공과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직업교육과 취업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2021년부터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실 구축(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중증장애학생들도 취

업이 가능한 업체를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취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5명, 2022년 12월 현재 10명이 취업하는 등 취업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증장애학생의 취업은 일반학생이나 경도장애학생에 비해 많은 노력과 인적,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고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의 관련 업체가 모두 협력하고 노력해야 가능하다.

여수여명학교는 그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곳과 연계하여 해 오던 취업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인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부모

연대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취업처가 발굴되어 일반직업장뿐만 아니라 보호작업장 등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작업장을 선택하여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 한 해동안 GS 칼텍스 내 한울사랑 카페, 너울가지 카페, LG 하이프라자,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시장애인재활자립장 등에 10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의 바탕에는 직업교육 및 취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노력과 학교 관리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담당할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교사 및 관리자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신외재 선생님(진로취업 담당)은 “장애의 경중을 떠나 사회에 진출하여 사업장에서 일 하고 보수를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졸업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와 그런 학생들과 기꺼이 함께하는 교사, 누구보다 앞장서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관리자가 있었기에 우리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날로 확대되는 것 같다.”라며 지난 한 해 취업현장을 지원한 소감을 밝혔다.

여수여명학교는 2022년에 외식서비스실

과 대인서비스실, 조리직무실습실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실제 근무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질 높은 직업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세탁/요양실습실, 기초작업기술실을 구축(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보다 도움을 주는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수=김현근 기자

영광교육청,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한 겨울 영어캠프 운영



영광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영광의 국어체험센터에서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60여 명 참여

생 60여 명이 참여하는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학년별·수준별로 총 3기로 구성하였다. 2022년 월드컵의 나라별 문화와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에 대해 영어로 배워보는 캠프로 운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수별 5일간의 캠프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으로 익숙해진 대륙별 나라들의 특징을 배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나라를 소개해 봄으로써 영어의사소통 능력과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방학중에도 나와서 열심히 학습하고 있다.

학생들은 원어민 영어교사와 내국인 강사와 함께 Co-Teaching을 통해 내실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 용정중, 아주 특별한 졸업식 개최



보성에 있는 용정중학교는 지난 7일 제20회 졸업식을 마쳤다.

용정중학교는 2003년 개교 이후 매년 토요일에 졸업식을 한다.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배려 하기 위해 시작 됐는데 용정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지 20년이 됐다.

용정중학교 졸업식이 특별한 이유는 졸업식 전날 진행되는 전야제 행사를 빼놓을 수 없다. 졸업식 전날 재학생들이 졸업을 앞둔 선배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용정만의 전통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졸업생 부모님들이 참석하여 전야제가 더욱 빛이 났다.

이번 전야제 행사는 재학생들의 감동적인 공연, 선배들의 3년 동안 생활한 모습을 담은 X-파일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행사의 꽃은 졸업생들이 3년 동안 생활하며 느꼈던 아쉬움과 후배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

리고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한마디 시간이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졸업생을 안아주는 선생님, 죄송함을 전하는 졸업생, 후배들의 손 꼭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애뜻했다. 용정만의 졸업식 전야제는 모두의 가슴에 추억을 남기고 끝마쳤다.

그리고 다음날 이어진 졸업식 역시 특별하

다. 졸업생들이 학부모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맞절하는 시간도 있었다. 부모님들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선생님의 손을 놓지 못하고 우시는 부모님들까지 계셨다. 용정중학교 졸업식은 여느 학생을 떠나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쉬운 시간으로 가득 채워졌다.

졸업생 모두 20년 후의 자신의 꿈을 발표하고 그 꿈을 용정 뜰에 묻는 행사로 용정중학교 졸업식은 마무리됐다. 2학년 조OO학생은 “선배들과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헤어진다고 하니 정말 아쉬워요.”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3학년 김리원 학생 어머니는 “용정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부모인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3년 동안 베풀어주시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20기 졸업생 모두 용정에서 배운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한다.

보성=김혁순 기자

무안교육청 Wee센터, ‘그림책을 활용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남약 학생·학부모지원센터에서 관내 학부모 대상 실시

무안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9일 남약 학생·학부모지원센터에서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통한 마음성장’이라는 주제로 겨울방학 맞이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그림책문화협회 이사장인 노미숙 강사님을 모시고 그림책을 통해 방학 중 자녀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그림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그림책은 어린 아이만 읽는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김선지 교육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 내 활력을 제고하고 방학 중 학생들의 정서 관리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2월 6일에는 초등 고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그림책 산책’ 주제를 가지고 그림책을 해당 연령에 맞게 활용하는 맞춤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